

서울 YWCA 2022 11/12 vol.621



2019. 3. 8



교회언니들의 불금파티

서울Y는 2017년 '기독교여성주의 연구모임'을 시작으로, 기독교여성주의 운동을 펼치고 있다.

2019년 3월 8일에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토크콘서트 '교회언니들의 불금파티-금지된 것은 없다. Nixing'가 개최됐다.

'금지된 것은 없다'라는 뜻의 불금파티를 통해 2030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문제제기가 어려웠던 성차별 이야기를 자유롭게 터놓았다.

백소영 교수(강남대 기독교학과)가 진행을 맡고, 여성신학자인 김희선·이은애·이주아 교수가

'교회언니'로서 8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소통했다.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11월 공동기도

하나님, 비록 허둥거리며 달려왔지만 지나온 자취 돌아보니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감싸 안고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혼돈과 무질서를 가지고도 빛을 창조하십니다.
어둠이 우리를 확고히 사로잡고 있지만 당혹스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패배할지 몰라도 주님은 패배하지 않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일상을 성화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12월 공동기도

하나님, '그 어떤 항구도 목적지로 삼지 않는 자에게는
바람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을 실감하는 나날입니다.
시간에 떠밀리며 살다 보니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적잖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결산해야 할 시간입니다.
밖으로 향했던 눈길을 안으로 거두어들이고, 지향을 바로 하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아멘

<서울YWCA> 2022년 11·12월호

통권 제620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2년 11월 1일

발행인 이유림 편집인 김양선 편집위원장 배은경

편집위원 이재숙 인 미 최혜란 황정혜 편집위원장 성지희

발행처 (사)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 4 나를 살리는 말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허리를 굽히시는 하나님
- 6 Y 이슈
기독교시인아카데미 '환대와 평화를 묻다'
- 8 현장 속으로
여성청년 글로벌 평화리더십
2022 신혼부부학교
생명살림 바자회
홍카페용품 이용·가격실태 조사 결과
- 12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
예능 프로그램의 신선한 변화, 여성 예능
- 14 환경과 여성
호모 심비우스가 희망이다
- 16 영화와 삶
영화 <레벤느망>
- 18 서울Y 소식
9·10월 뉴스
11·12월 행사안내
11·12월 캘린더
- 24 후원 소식
- 27 내일빛 캠페인
- 30 알림터
- 34 창립 100년 비전
- 36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차사백, 서울Y 2·4대 회장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선희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중략)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7절)

나는 차분한 생김과는 달리 다혈질이며 성질이 급하고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 직설적이고 자랑할 일이 생기면 입이 근질근질, 은근히 자긍심도 꽤 높아 남을 선입견으로 판단하기 잘하며 약간 교만한 편이다. 처녀 시절에는 더욱 이런 성격이 두드러졌다. 나이 차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지만, 외동딸로 자라서인지 결혼 후에도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해 남편의 잘잘못을 따지고 복수하려 하고 쉽게 단죄하곤 했다. 내 성질대로 안 되면 벽창호 같은 남편을 발로 차고 꼬집어 뜯고 울고불고하기도 많이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녀독남에 무소불위, 나보다 더 강한 고집쟁이 남편에다 더 얹어 시집살이로 나를 단련하시기로 마음먹으신 듯했다. 이렇다 보니 눈먼 사랑에 빠져 결혼은 했으나 40대 후반까지 남편과의 관계는 이혼만 안 했을 뿐 결혼 지옥이 따로 없었다.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은 성당에서 남편과 관면혼배를 했을 때 신부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인용하신 글귀다. 하지만 나와는 거리가 먼 채 효력을 제대로 발휘치 못했다. 그저 말씀

내용을 요약한 ‘인지위덕(認之爲德)’이라 쓰인 액자 하나가 화두처럼 매일 나를 내려다본 덕에 이혼은 면하고 참고 또 참고 살았다 할까. 가끔은 ‘인지위덕 아니고 인지위독(認之爲毒) 아냐?’라고 중얼대면서 말이다. 하지만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일 중독으로 나를 외롭게 만들었던 남편과 몇 해 전부터 서울, 양평을 오가며 ‘너는 너, 나는 나’처럼 주말부부에 가깝게 살고 있지만 오래 같이 살다 보니 조금씩 각자 모난 부분은 점점 둥글어지고 점점도 조금씩 생겨간다. 환갑이 다가오는 지금에서야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고 실천되어 감을 느낀다. 남편이 변한 건 없지만 그의 모난 부분들을 좀 더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고 시련을 함께 극복해가며 믿음이 돈독해져 투기나 질투도 하지 않게 되었다. 나를 살리는 이 말씀 중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딱 하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데 요즘 나는, 남편에 대한 자랑이 늘었다. 서울 가면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주고 반찬거리도 잘 사다주는 남편, 자주 스테이크나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주는 남편, 나에게 사랑표현도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은근슬쩍 잘하게 된 남편을 친구들에게 마구 자랑해 가끔 놀림거리가 된다. 그동안 남편 흉만 봐 왔으니 내 생각으로 그 반작용으로 자랑 좀 해도 될 듯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말라’ 하셨다. 그 말씀이 옳다. 이제부터 남편 자랑이 터져 나와도 입 꼭 다무는 연습을 좀 더 해야 더는 팔불출이 되지 않을 듯하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말이다. ♪

허리를 굽히시는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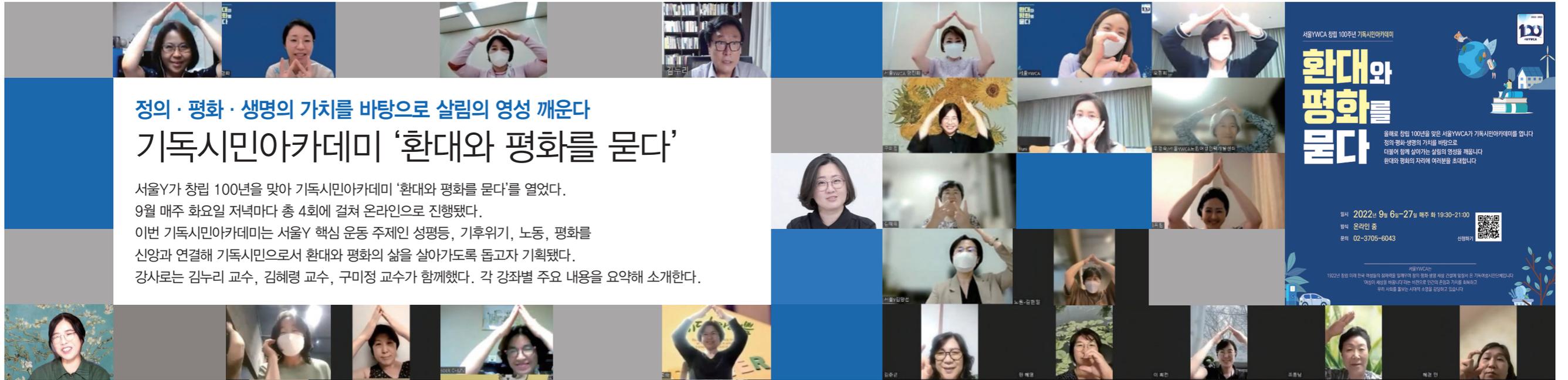
서해원
생명운동팀 활동가

기독교 사상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맥락이 번갈아 가며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신)은 내려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플라톤,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 등은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먼저 스스로를 보이며 소위 선행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주장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경험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고,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과 기름 같은,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이 두 가지 맥락은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번갈아가며 이어지고 있다. 시대에 걸쳐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은혜를 믿는 신앙이 주를 이뤘다가도 이어서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 믿는 신앙이 주를 이루기도 했다. 이는 범시대적일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서도 나타난다. 때로는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때로는 내가 탐구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곤 한다. 저 또한 두 가지의 균형이 건강한 신앙을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유난히 제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살피시는도다” (시편 33:13-14)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피기 위해 하늘에서부터 굽어보신다고 한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께서 그 허리를 직접 굽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살피신다.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곳을 향해 오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려오신다는 것은 의미 그 이상의 감동과 위로를 준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기 위해 그 허리를 굽히신다. 그 사실이 나를 살게 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다. ♪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바탕으로 살림의 영성 깨운다 기독시민아카데미 '환대와 평화를 묻다'

서울Y가 창립 100년을 맞아 기독시민아카데미 '환대와 평화를 묻다'를 열었다. 9월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총 4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기독시민아카데미는 서울Y 핵심 운동 주제인 성평등, 기후위기, 노동, 평화를 신앙과 연결해 기독시민으로서 환대와 평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자 기획됐다. 강사로는 김누리 교수, 김혜령 교수, 구미정 교수가 함께했다. 각 강좌별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서울YWCA 창립 100주년 기독시민아카데미

환대와 평화를 묻다

올해로 창립 100년을 맞은 서울YWCA가 기독시민아카데미를 엮습니다.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바탕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살림의 영성을 깨웁니다. 환대와 평화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2년 9월 6일~27일 매주 화 19:30-21:00
 방식 온라인 중
 문의 02-3705-6043

서울YWCA는 1922년 창립 이래 한국 여성들의 참정권을 쟁취하고 한국 평화 운동의 중심에서 100여 년을 걸어왔습니다. '영성'이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이는 비단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고, 우리 사회를 살리는 사회적 소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강 정의·평화·연대의 세상을 꿈꾸며 김누리 중앙대 독일어문학 교수

현재 한국사회는 '정의'가 사회적 가치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공정'만을 외쳐대는 상황인데, 공정은 지켜야 할 규범이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니다.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승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경제학자 토마피케티의 <세계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가난한 자(하위 50%) 대비 부유한 자(상위 10%)가 52배나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불평등이 심각하다. 또한 한국은 식민, 분단, 냉전, 내전, 군사독재까지 근대국가의 모든 비극을 겪은 유일한 나라이다. 그럼에도 평화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절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는 생각으로 세계의, 특히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의와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믿고 연대해야 한다.

2강 환대하는 영성으로의 부름 김혜령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교수

환대란 사랑보다는 '어떤 사람을 맞이하는 상태'다. 환대는 영성이 필요한 부분으로 특히 기독인에게 환대란 하나님의 부르심, 신의 힘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다. Y는 '바른 사회'와 '바른 가정', '여성-남성의 바른 관계'를 위해 일해 왔다.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전에 율타리가 되어 주는 일을 Y가 했다. 근본적으로 '(올)바름'이란 전통적 도덕 가치에 대한 저항과 갈등이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 종교적 규범에 맞서며 '무조건적 환대'를 보여주셨다. 무조건적인 환대는 지금까지 확신해 온 '(올)바름'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된다. 내가 생각하는 '바름'이 누군가를 대하는 첫 잣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적인 환대를 바탕으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3강 살고 살리는 영성으로의 부름1 구미정 송실대 초빙 교수 · 이은교회 담임목사

살고 살린다는 것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생명(生命)을 받드는 삶과 타자와의 관계에서 살리는 삶(살림)을 말한다.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시민됨(Citizenship)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공공 영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다. 오늘날 경제 문제는 모든 사람이 지대한 관심을 갖는 공공의 문제로 봐야 한다. '영성'이란 사사로운 개인에서 공공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믿는 몸의 종교이며 나, 너, 우리, 지구 모두의 '몸 성하기'가 곧 영성이다. 모두의 성한 몸을 지켜가기 위해 이 시대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탄소금식'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망치고 있는 지구를 그리스도인이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sus, 공생인)로 살고 살려내야 한다.

4강 살고 살리는 영성으로의 부름2 구미정 송실대 초빙 교수 · 이은교회 담임목사

돌보지 않는 행위의 대부분은 무의적으로 일어난다. 돌봄은 여성의 일이 아니다. 돌봄은 인간의 모든 생애주기마다 필요한데, 인간은 독립 주체가 아닌 서로 의존하는 존재다. 무엇보다 '돌봄의 의식화'가 중요하다. 돌봄의 의식화가 이루어지면 돌봄과 경제는 함께 갈 수 있다. 약육강식, 승자독식이 아닌 공생공존, 보편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원무'가 없는 민족은 없다. 원무는 함께 손잡자는 초대이다. 몸의 중심은 가장 아픈 곳이다. 가정의 중심도 연약한 자다. 결국 돌봄이 삶의 중심에 놓인 사회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 나라도 바로 이런 모습일 것이다. 살고 살리는, 서로 돌봄의 영성으로 환대와 평화의 가치에 헌신해야 한다.

월간 세미나 여성청년 글로벌 평화리더십

서울Y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평화 실천 활동을 통한 해결을 위해 '여성청년 글로벌 평화리더십 프로그램'을 4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월간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했다.

국제분쟁

1차 우크라이나-러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이해 구정은 국제전문기자

우크라이나는 독립 국가이지만 오랜 기간 러시아에 압박받았다고 생각해 온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서 파생된 하나의 민족으로 생각해왔다. 지속된 영토 분쟁,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문제가 긴장을 고조시켰고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국제정세와 지정학적 사실들을 파악하는 동시에 전쟁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2차 우크라이나의 목소리 올레나 쉘겔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

외세의 부침이 잦았던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성들도 전투, 지원에 투입되어 전쟁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또한 세계는 난민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러시아, 전쟁을 멈춰라!"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명확한 표현을 통해 보다 강력하게 평화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

기후위기

3차 기후위기를 해결할 여성리더십 아테나 페렐타 세계교회협의회 활동가

기후위기는 여성에게 더 나쁜 영향을 끼친다. 기후변화는 환경적인 현상이지만,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따라 거대한 사회경제적 충격으로 연결된다. 여성리더십은 기후위기 해결책이 최대한 공평한 결과를 낳도록 도울 수 있다. 기후위기 정책과 예산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여성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

4차 기후위기와 싸우는 우리의 자세 티엔이 순 Environmental Defense Fund 연구원

기후 변화의 결과인 자연재해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어느 국가도 피해갈 수 없다. 기후 재난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모두가 기후 위기에 대한 담론의 장을 만들고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성의 몸

5차 여성성기절제를 멈추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남코 알리 The Five Foundation 대표

여성성기절제는 비의학적인 이유로 여성의 성기 부분을 손상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으로 전 세계 2억 명의 여성들이 희생되고 있다. 여성이 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 성기절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때문에 세계는 아프리카 소녀들이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한다.

6차 이라크에서 미얀마까지 전쟁도구가 된 여성 크리스타나 램 <관통당한 몸> 저자

전쟁에서 강간은 총알보다도 저렴한 무기이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지역 밖으로 쫓아내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처벌 받는 일도 극히 드물다. 전쟁 속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가 침묵과 고통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많이 알리고 범죄의 증거수집에 애쓰고 해당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정리 김진주 국제협력팀 간사

2022 신혼부부학교 102쌍의 신혼부부 서울숲에 모이다



▼ 설렘정원에서의 스냅 사진



▶ 요조의 축하무대

서울Y와 유한김벌리가 2009년부터 함께 열고 있는 신혼부부학교. 지난 13년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려 11,014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신혼부부학교가 올해는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9월 24일 서울숲 야외무대를 찾은 신혼부부들은 '환경 요정' 요조의 축하무대, '가족상담소' 박상미 교수의 부부 소통 특강, '부부 천재 뮤지션' 제이레빗 헤선x커피소년이 꾸미는 부부 소통 콘서트를 즐기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유한김벌리가 조성한 설렘정원에서의 스냅 사진 촬영, 부부 소통 굿액션 미션 챌린지 등의 이벤트가 추억을 더했다. 푸르른 가을 하늘 아래 서울숲을 핑크빛으로 물들인 신혼부부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평등한 가정을 이뤄가길 기대한다.



▲ 박상미 교수의 부부 소통 특강

▼ 제이레빗 헤선x커피소년이 꾸미는 부부 소통 콘서트



창립 100주년

생명살림 바자회

1960년대부터 해마다 찾아오는 서울Y 큰장날이 올해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실천하는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 주제로 10월 20일 서울Y 회관에서 열렸다.

특별 이벤트로 100원 행운 마켓, 역사퀴즈, 경성패션 포토존 등이 진행돼 회원과 시민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회관 2층에 마련된 제로웨이스트 팝업스토어와 사회적기업 바이소셜 부스는 가치 소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생명살림 바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도 생명살림의 삶을 실천해 가기를 기도한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 100원 행운마켓 즉석 뽑기에 당첨되거나 역사퀴즈 정답을 맞춰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회원과 함께



국내 최초 제로 웨이스트샵 'the Picker'와 100% 재활용(PCR) 페트 용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뷰티브랜드 'AROMATICA'와 함께한 제로 웨이스트 팝업스토어. '자원순환'을 고려한 '건강한 소비문화'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홈카페용품 이용·가격실태 조사 결과

유통채널별 가격 편차 커 꼼꼼한 비교 필수

코로나의 장기화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며 '홈노미' 시장이 활성화되고 홈카페 시장 또한 성장하고 있다. 이에 서울Y는 홈카페 시장에 대한 소비자 요구와 가격실태를 조사했다. 정리 김진아 생명운동팀 활동가

이용자 1인 월평균 약 10만원 지출

응답자 75.8%가 하루 1잔 이상 커피를 마시며, 한 달 평균 커피 구입비는 103,978원(이용자 기준), 전문점 커피가 그중 40.5%(42,088원)로 비중이 가장 컸다. 전년 대비 전체 커피 구입비는 증가(61.2%)했는데 홈카페 관련 지출이 가장 증가(69.2%)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75%가 집에 캡슐커피 머신이 있으며, 홈카페 구비로 가정 내 커피 음용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커피 관련 외식비 지출은 감소해(응답자 44%), 결론적으로 '커피 지출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줄었다'(59%)고 평가했다.

홈카페용품 가격은 다양각색

조사 결과 머신은 유형이나 기능에 따른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전자동·반자동 머신은 해외직구가 비교적 저렴하고, 캡슐커피 머신은 국내 판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두가격 또한 동일 생산지의 경우, 최고가가 최저가의 3.8배에서 9.6배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캡슐커피는 유통채널별 가격차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다만 일부 머신에서 자사 브랜드 캡슐 외에 타 브랜드 캡슐을 사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같은 모델도 가격차가 최대 1,640,000원??" (전자동 커피머신)

홈카페 소비자 인식·지출비용 조사

- 조사 시기: 2022년 6월 16-20일
- 조사 대상: 전국 거주 만 20-59세 성인 남녀(홈카페 이용자) 500명

홈카페용품 가격실태 조사

- 조사 시기: 2022년 7월 1-20일
- 조사 대상: 커피머신, 원두, 캡슐커피
- 조사 장소: 온라인 : 공식몰, 오픈마켓,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 오프라인 : 서울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 가전매장

- ☞ 원두 유통 구조 투명화, 가격 검증 평가 시스템 마련
- ☞ 수입 커피머신 지속적 가격 모니터링
- ☞ 홈카페 시장 & 용품 관련 정보 제공 강화

여성 예능의 신선한 변화 예능 속 여성 캐릭터 전형성 탐피

‘재미’와 ‘귀여움’을 벗어난 여성 예능 등장

최근 텔레비전 속 여성 출연자 중심의 예능이 눈에 띈다. 이런 경향은 <골 때리는 그녀들>, <스트릿 댄스 우먼 파이터>, <엄마는 아이들> 같은 프로그램의 등장뿐 아니라 성비 균형의 변화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6년간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 남성 출연자의 비중이 높았지만,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여성 출연자가 더 많았다. 여성은 391명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성비의 변화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여성 축구를 주제로 한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는 초창기 여성 스포츠 예능이 운동하는 여성의 미숙함을 소재로 활용했던 데 반해 여성 심판을 등장시키고, 축구 전문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등 여성 스포츠의 전문성을 부각시켰다. <골 때리는 그녀들>은 그동안 여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운동할 기회’, 특히 스포츠 경기를 스스로 즐길 기회를 여성에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방송 초기부터 성평등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왔다. 여성 선수뿐 아니라 심판진 또한 모두 여성들로 구성함으로써 여성 심판이라는 ‘낯선’ 역할을 프로그램에 등장시킨다. 이는 그동안 선수와 대회, 심판 등 스포츠계 전반에서 여성이 드러나지 않던 현실에서 벗어나 여성도 스포츠 분야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여성들의 스포츠 경기를 ‘진짜’ 스포츠로 인식하게 한다.

10대-20대 여성 스트릿 댄서들을 주요 출연자로 구성한 <스트릿댄스 걸스 파이터>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인기에 따라 후속 제작되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여성의 연대를 드러내고, 미디어 속 ‘소녀’, ‘여성’의 이미지를 부수며 여성 캐릭터의 전형성을 탈피했다는 점에서 여성 출연자의 등장이 성평등한 재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댄스’를 중심으로 여성 버전과 남성 버전, 두 프로그램을 총괄 제작한 한 제작자는 제작 발표회에서

“여자 댄서들에게 질투와 욕심이 있었다면, 남자 댄서들에게서는 의리와 자존심 대결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전형적인 성차별적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은 성별에 따른 특성이 분화되어 있으며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부정적인 특성을, 남성은 긍정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전달한다. 이러한 제작자의 성차별적 발언은 프로그램이 가지는 성평등적 의미를 해치며, 제작자가 시청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성비 균형 넘어, 다음 과제는 다양성 확보

예능·오락 프로그램의 반복되는 차별적 젠더 재현 방식을 넘어 선 성평등한 사례들이 긍정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출연자의 역할이 재현되는 모습은 예능·오락 프로그램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자 신선한 변화다. 사회가 변화하며 시청자들도 변화하고 방송도 변화한다. 예능은 특히 시청자의 평가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며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에 변화가 빨라야 한다. 물론 여전히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훨씬 많이 제작되는 데 반해 여성 중심 예능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빠르게 사라진다. 하지만 과거라면 제작되기도 못했을 여성 예능 기획들이 이제는 ‘한 번 해볼까’의 단계까지는 왔다.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예능 속에서 더욱 다양한 여성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다. 성비 균형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여성상의 재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정리 이지은 여성운동팀 활동가

- * 모니터링 대상 : 2022년 상반기(1월 1주-6월 1주) 월별 종합 반응 DB 기준 상위 총 20개 프로그램, 각 2회분, 총 40편
- * 모니터링 기간 : 2022년 6월 22일 - 7월 6일

서울YWCA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2022년 12월 9일(금)
2시 기념예배 | 3시 기념식
승동교회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s, 공생인)가 희망이다



구미정
기독교 인문학자
승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초빙교수
이은교회 목사

산과 강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파헤칠 수 없다. 대지가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어머니가 간직한 금과 은을 감히 빼앗을 수 없다. 땅은 죽은 물질이고, 구리든 철이든 땅에 묻힌 자원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적당히 활용되면 그만이라고 해야 마음 편히 약탈한다. 근대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라는 명제는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어디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아는 사람이 돈의 위력을 장악한다. 영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침략해 자기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속속 노략질한 역사도 그런 마음 바탕에서 나왔다. 지식과 권력, 제국과 자본은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런 문명의 행보가 자연의 죽음을 낳았다. 인류가 몇 차례에 걸쳐 문명의 문지방을 넘는 사이에, 자연은 점점 위축되다가 마침내 쪼그라들고 말았다. 자연을 죽인 인간 종족의 이름을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라 부른다. 우리, 곧 현생인류가 바로 사피엔스다. 머리가 좋은 사피엔스는 같은 '호모(Homo, 사람)'에 속한 네안데르탈렌시스, 솔로엔시스, 플로레시엔시스, 데니소바, 루돌펜시스, 에르가스테르 등 사촌들을 단박에 제치고 독무대에 올랐다. 사피엔스는 가는 곳마다 멸종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지혁명이 일어날 즈음 지구에는 몸무게 45킬로그램이 넘는 대형동물 약 2백 속(屬)이 살고 있었다. 농업혁명이 일어날 즈음 이들 중 남은 것은 약 1백 속에 지나지 않는다. ... 우리는 생물학의 연대기에서 단연코 가장 치명적인 종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조현욱 옮김, 김영사, 2015: 30-31)

구미정 교수는 일상의 소소한 풍경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 찾기를 즐긴다. 진지하고 심각한 신학 풍토에 자유롭게 경쾌한 이야기로 생명을 수놓아가는 기독교 인문학자. 지은 책으로는 「한 글자로 신학하기」, 「두 글자로 신학하기」, 「그림으로 신학하기」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교회 다시 살리기」, 「작은 교회가 답이다」, 「생명의 해방」 등이 있다.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

눈 밝은 이들은 일찌감치 '인간중심주의'의 문제를 꼬집고 나섰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1962)이 대표적이다. DDT 살충제의 위험을 알린 이 책으로 그는 '생태학 시대의 어머니' 혹은 '환경운동의 대모'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고작 사후에 얻어진 영광일 뿐이다. 생전에는 기업과 정부의 표적이 되어 이리저리 시달리다가 결국 암에 걸려 이른 죽음을 맞이했다. 책이 나온 지 2년 뒤 일이다.

그러니까 1960년대 '해방의 시대'에 민족과 인종과 계급과 성별을 넘어서 자연의 해방까지 고민한 선각자들이 있었다는 건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그 사이 인류는 지구별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살아서 지구별 바깥을 나가보고 싶다는 욕망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동서 냉전 시대가 개막된 만큼, 미국과 소련 두 나라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달에 착륙하느냐가 자존심 대결로 이어졌다. 승자는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었다. 그가 선장으로 있던 아폴로 11호가 무사히 달에 착륙해 지구별 사진을 찍어 보냈다. 지구는 과연 둥글었다! 지구별에 몸 붙여 사는 누구도 지구별 전체를 볼 기회가 없어, '지구는 평평하다, 네모다' 떠들어 댔으나,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잡설을 중단시켰다. 태양계의 캄캄한 암흑 속에서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지구별 사진은 아름답고도 장엄하며 연약하고도 강인한 생명의 진실을 단박에 깨우쳤다. 그 덕에 1970년 '지구의 날'(4월 22일)이 선포되었다. 지구에서 인간의 지위에 대한 성찰이 새삼스레 문명의 화두로 떠올랐다. 최첨단 문명의 상징으로 꼽히는 핵무기나 원자력 발전 따위가 지구생태공동체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그 목소리들의 한 복판에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가 있다. 인간중심주의만 반성할 게 아니라 남성중심주의도 전복해야 한다고 일깨우는 목소리다.

심비우스는 성서가 말하는 '농(農)'의 사람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범위가 확장된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에서 인간은 어디까지나 '귀족 남자'에 국한되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계약법으로 오면 '유대 남자' 전체를 지칭하는 데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여자'를 포괄하여 창조신학을 펼쳤으나, 그 노력

은 다만 이상일 뿐, 현실은 관습법이 우세했다. 예수 시대까지도 여자는 사람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자도 사람이다'라는 당연한 주장이 오랜 침묵을 뚫고 분출하기 시작한 건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다. 당시 이 주장은 간단히 무시되었으나, 두 차례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금 되살아나 꽃을 피우게 되었다. 지금도 인류는 '사람'에 유색인, 빈민, 난민 등 다양한 정체가 포함되도록 투쟁하는 중이다. 어디 사람만 중할까? 2017년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이 신성하게 여기는 황거누이 강이 사람과 동등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갖는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서 타라나키 산에도 법인격을 부여했다. 사피엔스가 드디어 '심비우스(symbios, 공생인)'로 변태(變態)하고 있다는 증후다.

심비우스는 군림하지 않는다. 문명의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짓은 사피엔스의 전유물이지만, 심비우스가 할 일이 아니다. 이 신인류가 '오래된 미래'이며 지구별의 희망이다.

심비우스는 군림하지 않는다. 문명의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짓은 사피엔스의 전유물이지만, 심비우스가 할 일이 아니다. 심비우스는 성서가 말하는 '농'의 사람이다. 농(農)이라는 한자어는 별 진(辰)자 위에 노래 곡(曲)자가 붙어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농의 사람이다. 하여 생태여성주의자가 싸울 대상은 남성이 아니다. 남성은 사랑해서 구원할 대상이지, 이겨 먹을 상대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생태여성주의자는 자기 안의 사피엔스적 욕망과 씨름한다. 메두사처럼 고개를 쳐드는 사피엔스의 고삐를 단단히 붙잡으며 날마다 심비우스로 부활하고자 수행에 힘쓴다. 이 신인류가 '오래된 미래'이며 지구별의 희망이다. ♪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도다
- 괴테 『파우스트』 중에서

* 창립 100년을 맞아 YWCA 정체성인 기독교여성애를 주목하고 에코페미니즘을 바탕으로 신학과 윤리를 다시 바라보며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모색합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아니 에르노 원작 영화 <레벤느망>

작가 자신의 불법 임신중지 수술 경험



이경순
영예위원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책 속에 길이 있다”지만 요즘같은 영상 시대에는 영화 속에도 길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화관에서 상영할 때를 놓친 영화를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OTT(Over the top media service)시대를 맞아 아무 때나 원하는 영화를 찾아 보는 일이 수월해졌다.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가 대학생 시절에 불법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던 경험을 쓴 작품 [사건]을 스크린에 옮긴 영화 <레벤느망>을 소개한다.

“문학은 권력과 지배에 대한 싸움의 무기”

여성작가로는 17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된 아니 에르노(Annie Ernaux 1940~)는 ‘직접 체험하지 않은 것은 쓰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임신중지(낙태), 질병, 빈곤, 성(性) 등 사회적으로 어둡거나 곱지럽다고 여겨지는 주제를 거침없이 풀어내 ‘용기 있다’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작가이다.

프랑스 여성 작가 중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에르노는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에서 “내가 상을 받은 건 나의 글이 아직 살아있고 그것이 메아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문학이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이 생겼다”고 말했다.



2022 노벨문학상 수상자 아니 에르노(가운데)가 10월 16일(현지시간) 물가 상승에 따른 대책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파리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의 선두에서 행진하고 있다.
- 파리 | AP연합뉴스



레벤느망
L'événement (Happening) 2021
원작 아니 에르노
감독 오드리 디완
출연 아나마리아 바토로메이
장르 드라마 (100분)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개봉 2022. 3.10.

“문학은 권력과 지배에 대한 싸움의 무기”라고 말해 온 82세의 노작가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여성의 임신중지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흐름이 미국 등 국제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하며 “여성이 엄마가 되고 싶은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때 불법 낙태 수술을 받았던 자신의 경험을 쓴 ‘사건(원제 L'événement)’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2021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레벤느망>이다.

제78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

1963년 프랑스, 대학생 안이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작가로 촉망 받는 미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임신중지를 선택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임신중지가 불법이던 시대에 자신의 모든 꿈을 접어야만 하는 미혼모가 되지 않으려고 불법으로 위험한 중지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한 에르노의 [사건]이 원작이다.

역시 임신중지의 경험이 있는 여성감독 오드리 디완이 섬세하고 절제된 연출로 성공적으로 스크린에 옮겨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제78회 베니스영화제에서 대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원작자 에르노는 이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보고 매우 감동받았다.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오드리 디완 감독이 진실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이다”라고 극찬했다. ♪



대학생 '안'은 예기치 못한 임신 사실을 알게 된다. 낳으면 미혼모가 되고,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현실, 그녀는 임신중지 수술을 받기로 결심한다.

청(소)년 평화바라기 프로젝트 청(소)년 평화걷기

서울Y는 10월 8일 청(소)년과 함께 철원DMZ로 '청(소)년 평화걷기'를 다녀왔다. 민통선 초소, 월정리역, 노동당사, 백마고지 전적기념관, 승일교를 탐방하며 분단의 현실을 마주하고 왜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기도 한 가이드에게서 들은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이야기, 시민과 함께한 피스 액션은 청(소)년이 DMZ에서 평화의 길을 묻고 찾아가는 데 디딤돌이 되었다. 서울Y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평화를 사유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백마고지 전적기념관 앞에서

시민과 함께한 피스액션

책 '글 쓰는 교회 어머니' 발행

서울Y는 8월에 총 5회에 걸쳐 중년 여성 글쓰기 워크숍 '글 쓰는 교회 어머니'를 진행했다. "어머니"는 엄마와 언니를 모두 포용하는 개념이다. 삶을 돌아볼 겨를 없이 살아온 중년 여성이 자신의 삶을 글로 보듬고, 쓴 글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글과 삶을 연결했다. 성차별적인 문화 속에서 침묵 되어온 여성들이 자신의 언어로 써 내려간 삶에 대한 기록들은 10월 한 권의 책이 되어 세상에 나왔다.



영등포

성평등 요리교실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9월 5일 '성평등 요리교실 일품요리 무료특강'을 진행했다. 영등포구 거주 맞벌이 가족을 중심으로 부부 또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허브소스 치킨 스테이크, 발사믹 드레싱 샐러드 등을 직접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과 생활 속 성평등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노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커피바리스타입문반'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평가도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두 달간 이어진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203개의 기관이 참여했으며, 기본요건과 내용 심사 등 3차에 걸쳐 24개의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9월 30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렸으며 평가도구 품질향상을 위해 우수사례 발표회도 함께 진행됐다.



강남

세계문화축제

강남청소년수련관은 9월 24일 2022년 강남구 청소년어울림마당 '세계문화축제'를 열었다. 청소년을 비롯해 지역주민까지 총 243명이 참여했다. 5개국(일본·베트남·멕시코·케냐·네덜란드) 원어민에게 나라별 인사말을 배우고 각국의 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는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축제가 청소년들의 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글로벌 창의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봉천

'모하우 플라마켓'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추석을 맞이해 9월 3일 청림어울림길에서 '모하우(모이면 하나되는 우리마을) 플라마켓'을 열었다. 사전모집을 통해 지역주민 13팀이 판매팀으로 함께했다. 복지관 바자회 부스, 체험부스,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활동 또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모았다. 판매수익으로 명절 선물을 마련해 지역 내 저소득가정 33가구에 전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개최된 첫 절기행사로 많은 주민과 소통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시간이었다.



누리봄

전시회 '보듬고, 돌보는 누리봄마을'

누리봄은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보듬고, 돌보는 누리봄마을 - 피움, 가꿈, 나눔'을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열었다. 쉼터 입소자와 주거지원 입주자들이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4개월간 작업한 '보테니컬아트' 29개의 작품을 선보였다. 작품은 머그 굿즈로도 제작돼 의미를 더했다. 이번 전시회는 채드워 송도국제학교 '영어성장판 쑥쑥 동아리'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약 400명이 전시장을 찾아 누리봄 가족을 응원했다.





창립 100년 중보기도회 · 찬양영성집회

서울Y는 창립 100년을 맞이하여 서울Y회관 마루에서 중보기도회를 엽니다

- 일시 11월 29일(화) 16:00
- 내용 손경민 목사(아이빅밴드) 찬양팀 초청
- 주관 기도분과위원회
- 문의 02-3705-6064
- 일시 12월 22일(목) 11:00
- 주관 누리봄위원회
- 문의 02-887-7983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 1부 기념예배
- 2부 기념식

- 일시 12월 9일(금) 14:00
- 장소 승동교회
- 문의 02-3705-6097, 6017

북멘토링프로젝트에 함께할 북멘토를 기다립니다

북멘토링 활동은?

소년원 여성청소년 친구들과 1:1 멘토 멘티가 되어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지쓰기 활동입니다

- * 매칭된 청소년의 퇴원 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최소 24개월)
- * 도서구입비 후원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02-3705-6034

여성 청소년 건강 증진 프로젝트 Better Life for Girls 시즌2

서울Y는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여성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여성 청소년 영양 건강 challenge(챌린지) 'Y와 함께하는 즐겁고 건강한 식탁'

- 일정 11-12월 중
- 대상 여성 청소년 100명
- 내용 3가지 테마별 밀키트로 만나는 영양 가득하고 간편한 식사, 식사 조리법 및 인증 사진 온라인 플랫폼 공유

여성 청소년 변화이야기 '너의 변화를 응원해'

- 일정 11-12월 중
- 대상 여성 청소년 50명
- 내용 감성 이미지 사진으로 기록하는 건강한 여성 청소년 변화이야기

문의 02-3705-6009

생활돌보미 교육생 모집

서울돌봄과살림은 신입 돌보미회원을 모집합니다. 교육 이수 후 구비서류를 제출한 회원은 취업까지 연계가 가능합니다.

직종	대상	교육일	교육비
가사돌보미	65세 이하 여성	11월 23일(수) 12월 23일(금) 10:00-18:00	3만원
다누리 가사돌보미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여성		
아기돌보미	63세 이하 여성		
세이프맘	63세 이하 여성		
간병사	65세 이하 여성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11월 24일(목) 12월 22일(목) 14:00-18:00	4만원

- 신청 교육일 3일 전까지 전화신청
- 문의 02-3705-6013~4 / 02-3705-6071~2

서울YWCA 창립 100주년 감사음악회



11월 10일(목) 저녁 7시 정동제일교회 본당
문의 02-3705-6023

(사)서울YWCA 제3회 정기총회



- 일시 2023년 1월 31일(화)
- 문의 02-3705-6001, 6017

스포츠센터 '기구(리포머) 필라테스' 신설

서울Y는 리포머를 활용한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11월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필라테스는 조셉 필라테스가 창시한 프로그램으로 바른 자세로의 교정과 재활 등을 목적으로 신체 근력과 유연성을 발달시키는 운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Y 홈페이지 스포츠센터 게시판에서 확인)

- 강습 안내 주 2회(월·수, 화·목) : 154,000원
주 1회(금) : 80,000원
- 문의 02-3705-6030

교육 프로그램

과정명	일정	교육비
초등수학지도사	12월 16일(금)- 3월 3일(금) (금, 10:00-13:00)	12만원 (교재비, 자격증비용 별도)
영등포		
어린이 중국어지도사 (자격증)	11월 19일(토)- 1월 14일(토) (토, 10:00-13:00)	25만원

(사)서울YWCA 제3회 정기총회가 2023년 1월 31일(화)에 열립니다.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 감사·결산·사업보고와 함께 2023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채택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추후 다시 안내됩니다

CALENDAR

2022 **11**

월	화	수	목	금	토
	1 위원회 행사분과 10:30	2 위원회 재정부 11:00 · 미디어 모니터단 평가회 19:00	3	4	5 · Y-틴 협의회 11:00 · 그린Y 정기모임 13:00 · 싱크머니 정기모임(19일) 13:00
7	8 이사회 10:00 위원회 기도분과 13:00 회원모금분과 13:00	9	10 창립 100주년 감사음악회 <i>Precious Moment</i> 19:00	11	12
14 · 역대이사 모임 11:00	15 위원회 노원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영등포Y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 세계YWCA · YMCA 기도주간 연합예배 11:00	16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회원활동팀 11:00	17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18 위원회 강남Y 11:00	19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대학 · 청년Y 협의회 11:00 · 코리아안디아스포라 교류 11:00 · 그린Y-온새미로 · 올력Y-틴 회원멘토링 13:00 · 북한이탈청소년 이야기마당 13:00
21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22 위원회 누리봄 11:00	23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 · 아기돌보미 10:00	24 돌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3:30 · 봉천 후원자 · 자원봉사자 송년행사 18:30	25	26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보수교육 9:00 · 피스톡톡 정기모임 11:00 · 키다리학교 정기모임 13:00
28 위원회 봉천Y 11:00	29 위원회 공천위원회 9:30 인사 11:00 임원 12:00 창립 100년 찬양영상집회 16:00	30			

CALENDAR

2022 **12**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 Y-틴 협의회 11:00 · 그린Y 정기모임 13:00 · 싱크머니 정기모임 13:00
5 · 창립 100주년 기념 전시회 개막식 14:00	6 위원회 재정부 11:00	7	8	9 창립 100주년 기념예배 · 기념식 14:00	10 돌봄회원 성탄예배 · 연말시상식 10:00 월례회 · 재교육 요양보호사 13:00
12	13 이사회 8:00	14 · 봉천 시설운영위원회 11:00	15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16 위원회 강남Y 11:00 · 누리봄 Thank-U 페스티벌 18:00	17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10:00 · 피스톡톡 정기모임 10:00 · 대학 · 청년Y 우수활동가대회 11:00 · Y-틴 송년페스티벌 13:00
19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20 위원회 노원Y 11:00 누리봄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영등포Y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21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회원활동팀 11:00	22 돌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3:30 창립 100년 중보기도회 11:00	23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 · 아기돌보미 10:00	24
26 위원회 봉천Y 11:00	27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28	29	30	31

감사합니다

2022년 8월-9월

특별 후원



일시 후원

- 윤윤희
- 재정부 위원회

일반 후원



강명희	강서현	고려옥	고선혜	곽민규	구영숙	권혜진
기영숙	김미자	김병호	김상순	김선자	김소희	김숙희
김옥매	김윤희	김인복	김정순	김해정	김현경	김 형
김효신	민혜경	박숙자	박위자	박정희	박제희	박진선
배은경	배정미	서해영	석성옥	송순옥	송순옥	심영자
양수경	양진화	염현경	오세연	오준호	우정현	우주훈
우훈희	월요카페	유광주	육순연	윤윤희	윤혜선	윤혜선
이애진	이옥희	이원희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은숙
이재림	이종미	이행자	이홍자	임중현	임지영	장경미
장민경	장수자	재정부위원회	정문옥	정석용	정수경	
정승원	정은숙	조성환	조순영	조연신	조종남	조종남
지복임	채서은	채재호	최경자	최 봄	최혜란	하태진
한정신	홍근표					

재능 기부



- 최혜란(홍보출판팀 위원)

2022년 9· 10월 회보 '예술과 여성' 칼럼 기고

복멘토링 후원



김나은	김민아	김상희(김하나)	김선자	김성연	김은순
김정숙	김지영	김진숙	김혜경	남은희	박나영
박소현	박용천	박진선	박채원	배은경	손예림
송태언	신여명	신정숙	심영자	양진화	염현경
월요카페	유지현	이수미	이연배	이옥희	이윤선
이푸른하	이현미	이희정	임재연	정나미	조민형
최 봄	최정우	최한나	최혜영	한혜영	

월 CMS 후원



김윤우	김윤익	강경아	강경희	강금미	강동우	강명숙
강문숙	강민아	강선경	강성길	강수미	강신범	강신봉
강영숙	강영미	강유민	강윤정	강인지	강일훈	강주현
강진희	강창석	강하자	강형식	경규연	고경혜	고광표
고동연	고선자	고선혜	고선환	고성희	고유나	고은경
고은비	고은정	고은정	고은화	고은희	고인미	고재옥
고흥애	고희자	고희준	공명주	공우재	곽동윤	곽미숙
곽미자	곽민정	곽지영	구다은	구미영	구범서	구수영
구연경	구오영	권규상	권기웅	권내영	권범찬	권부남
권성준	권순철	권예현	권우경	권은희	권정연	권정희
권혁준	권혜진	권희원	권희정	길경경	길인숙	길종선
김경금	김경미	김경미	김경배	김경삼	김경선	김경아
김경원	김경일	김경일	김경화	김경훈	김관옥	김관채
김광수	김귀숙	김규영	김규진	김기연	김기옥	김기환
김나영	김남미	김다임	김도근	김동건	김동은	김동현
김동형	김동희	김두희	김라엘	김랑순	김말녀	김명후
김문자	김문휘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선	김미재
김미정	김미정	김미현	김미혜	김민성	김민숙	김민영

김민희	김병호	김보라	김보미	김보현	김복자	김봉근
김봉희	김석대	김선경	김선덕	김선리	김선미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성국	김성민	김성민	김성애	김성준
김성진	김성혜	김세용	김세진	김소망	김소영	김소은
김수연	김수연	김수진	김수진	김수현	김수호	김순경
김순남	김순연	김순연	김순임	김순자	김순정	김승찬
김승현	김시은	김애숙	김애주	김양미	김양선	김양숙
김예스터	김연경	김연숙	김연순	김연자	김연희	김영숙
김영식	김영옥	김영주	김영혜	김예지	김옥민	김용관
김용민	김용숙	김용숙	김용임	김우인	김원경	김유진
김윤나	김윤지	김윤진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애	김은영	김은주	김은혜	김은혜	김은희
김은희	김익동	김인하	김자희	김재경	김재성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윤	김재현	김정구	김정남	김정대
김정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애	김정연	김정옥	김정완
김정자	김정철	김정현	김정환	김종문	김종숙	김종용
김종운	김종진	김종하	김준희	김지나	김지선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은	김지혜
김지희	김 진	김진숙	김진숙	김진향	김진호	김창섭
김철민	김철주	김철준	김춘자	김충헌	김치백	김태식
김태연	김태준	김태준	김태진	김태한	김통범	김평배
김학희	김하나	김해정	김행미	김현경	김현경	김현성
김현숙	김현숙	김현영	김현일	김현정	김현정	김현중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형모	김형민	김형숙	김형순
김형순	김형순	김형태	김혜경	김혜양	김혜정	김혜진
김홍우	김화숙	김화자	김효숙	김효은	김희성	김희열
김희영	김희원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김희준
나선화	남궁진	남궁혜정	남상택	남연정	남윤경	노남례
노미선	노수연	노승은	노정자	노혜환	당효성	동지현
류소리	류종철	류 혁	마초희	명정신	목동진	문다영
문미현	문상규	문지영	문현숙	문형규	문형진	문혜경
민경술	민동성	민명자	민선기	민수홍	민여진	민정애
민지홍	민혜경	민혜경	박갑년	박강규	박경미	박경옥
박경호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광일	박광택
박구자	박근화	박근희	박남주	박노영	박명윤	박명자
박문성	박미경	박미경	박미란	박미영	박병주	박상건
박상영	박상정	박상태	박선미	박선영	박선영	박선정
박선주	박성주	박성호	박성희	박소윤	박소현	박소현
박순예	박순주	박승호	박시윤	박신자	박신환	박양신

박영미	박영선	박영순	박외정	박용진	박우표	박운용
박윤경	박윤슬	박은영	박은지	박은혜	박인선	박자현
박정연	박정우	박정원	박정훈	박정희	박종인	박종화
박종희	박주영	박주현	박주희	박지영	박지훈	박 진
박진숙	박진실	박진용	박찬인	박초순	박춘화	박태경
박태희	박현선	박현숙	박현숙	박혜리	박혜진	박휴영
박희봉	박희숙	박희정	방윤옥	방윤우	방은영	방혜영
배광순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배윤주	배은진	배정미
배정숙	배종우	배진영	배호성	백명숙	백미리	백민경
백민주	백성원	백순녀	백옥선	백은엽	백인성	백정금
백정화	백 준	백향덕	백향란	백향은	변영순	변은수
봉진영	쁘띠통	서근배	서미화	서반석	서빛나	서상희
서영미	서옥덕	서은경	서정순	서정연	서정희	서지영
서춘자	서현옥	서현정	서효옥	석명선	석상화	석성옥
석영미	선점환	성경란	성덕화	성연석	성윤수	성지윤
성지윤	성호숙	손승혜	손승희	손예림	손지용	송경진
송길례	송상경	송선희	송옥의	송윤주	송이라	송재임
송정민	송종우	송창은	송태연	송하윤	송혜승	송효수
신경자	신동선	신동원	신민자	신상용	신상우	신승우
신연식	신용자	신지숙	신지윤	신지혜	신정희	신총섭
신현미	신혜경	심경호	심재원	심정남	심정자	심혜영
안두환	안병수	안성포	안성훈	안순자	안승계	안영신
안영철	안영호	안외순	안유진	안윤희	안정국	안정희
안주희	안지혜	안진희	안진희	안진희	안태건	안한나
안혜리	양기혁	양명옥	양세진	양수정	양영순	양영애
양영호	양정은	양종숙	양진영	양현옥	엄경자	엄수길
여명진	염명경	염문철	염미행	염용희	염은애	염지수
염지희	오경아	오미영	오소연	오아름	오연아	오영아
오은주	오점희	오지영	온기석	왕정환	왕청식	용윤희
우수경	우승현	우영숙	우재하	우정희	우현주	우훈희
원경애	원유철	원혜숙	위정선	유규진	유남석	유남실
유덕호	유동미	유명숙	유미나	유미영	유병순	유성희
유 숙	유순희	유승연	유연숙	유예목	유은경	유은정
유은희	유재미	유재현	유정선	유정순	유정한	유주빈
유진선	유현숙	윤경례	윤경숙	윤경진	윤교희	윤동원
윤문노	윤미경	윤미소	윤방현	윤상은	윤 선	윤선영
윤선희	윤성섭	윤소영	윤소영	윤수진	윤순민	윤장범
윤재복	윤재숙	윤재혁	윤정향	윤정화	윤정희	윤지완
윤철웅	윤 혁	윤형석	윤혜섭	윤혜진	윤희경	윤희숙

(사)서울YWCA 창립 100주년 기금 후원

이웃의 내일을 밝혀 주세요



힘들고 지칠 땐 작은 빛 하나에도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 이웃의 내일을 밝혀주세요

서울YWCA 나눔 100년

희망을 전하는 내일 빛이 되어주세요

Y 기금

자립준비청소년 지원

- 자립준비 교육 (금융·진로·인문학교육 등)
- 1:1 멘토링 (정서적 지지·일상생활 가이드)
- 장학금·생활안정자금 지원
- 법률 자문 연계

W 기금

가정폭력피해여성 지원

- 가정폭력피해여성 공동작업장 상시판매소 지원
- 가정폭력피해여성 직업훈련
- 가정폭력피해여성·아동 생활 지원

C 기금

기후위기 재난피해 빈곤노인 지원

- 혹한·혹서기 냉난방 물품, 전기·가스요금 지원
- 건강키트, 영양식사 제공
- 기후재난 긴급지원 (의료품, 생존기금 등)

A 기금

서울YWCA 후원

- 서울YWCA 고유 목적사업 후원 (여성인권·기후위기대응·청소년 지원사업·평화운동 등)
- 지속가능한 서울YWCA를 위한 후원

윤희정	이가영	이가영	이건우	이건학	이경근	이경민	전은경	전은미	전은아	전인옥	전재수	전행옥	전혜인
이경민	이경아	이경애	이경연	이경옥	이경자	이경희	전홍신	정경문	정경미	정경옥	정경원	정동신	정명숙
이계숙	이광희	이규택	이금재	이기경	이기쁨	이기화	정문옥	정미선	정민선	정상미	정상아	정새와	정서진
이나경	이남연	이덕순	이돈행	이동숙	이동오	이동윤	정선덕	정선주	정선화	정선희	정세호	정소희	정수경
이동현	이명순	이명종	이명혜	이명호	이명희	이미숙	정숙향	정승원	정승원	정승혜	정애경	정연우	정영룡
이미자	이미진	이민석	이민선	이민정	이민정	이범재	정영희	정예슬	정원화	정유리	정유진	정은주	정은진
이병희	이복현	이복희	이봉주	이사랑	이상명	이상윤	정은하	정재훈	정정순	정정애	정정일	정종화	정종화
이상해	이상훈	이서현	이선덕	이선미	이선아	이선영	정준선	정지연	정지영	정지원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이선영	이선희	이선희	이성우	이소진	이수범	이수빈	정창용	정한솔	정해윤	정현아	정현정	정현주	정혜령
이수연	이수연	이수영	이수진	이수진	이수영	이순옥	정혜수	정혜승	정혜윤	정혜진	제오복	조규성	조규원
이순천	이순희	이슬기	이승민	이승연	이승한	이승현	조길수	조남익	조대신	조명희	조미선	조성미	조성미
이승희	이시현	이신현	이아름	이애경	이애리	이양출	조성진	조성채	조성호	조성환	조세환	조연신	조예은
이연서	이연아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석	조오영	조용선	조윤신	조재상	조점순	조정현	조정현
이영숙	이영숙	이영자	이영진	이영희	이예순	이예은	조정훈	조준하	조중희	조진영	조진희	조하은	조혜성
이옥경	이옥례	이용숙	이용호	이원애	이원희	이유리	조혜전	조홍신	주동일	주명애	주민숙	주소은	주영숙
이유림	이윤선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주지성	주형로	지경표	지미화	지승분	지영	지영찬
이은빈	이은숙	이은숙	이은아	이은아	이은영	이은영	지인	진영선	차경희	차미연	차지혜	채송화	채송화
이은이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채재호	채정림	채지은	최광기	최기은	최명민	최명혜
이은주	이은주	이은혜	이은희	이은희	이임제	이재강	최문정	최민호	최봄	최서래	최선미	최수경	최수희
이재건	이재경	이재옥	이재옥	이재정	이재천	이재혁	최순자	최순태	최승동	최승미	최승민	최승아	최영실
이정석	이정석	이정수	이정수	이정숙	이정아	이정은	최영아	최영주	최용운	최운영	최유나	최유정	최윤서
이정인	이정임	이정환	이정현	이정화	이정환	이정희	최운주	최유희	최유희	최은성	최은주	최정호	최정희
이종규	이종미	이종석	이종욱	이주연	이주형	이주형	최종대	최종인	최지영	최지영	최지은	최지희	최현경
이준혜	이중자	이지선	이지영	이지운	이지현	이지현	최현경	최혜원	최호길	최희숙	탁순희	탁정미	하명자
이진규	이진선	이진아	이진영	이진이	이창준	이창희	하재희	하정미	하지혜	하진희	하태성	하태진	한가원
이채진	이택완	이푸른하	이한기	이한성	이행남	이행자	한경희	한규철	한다정	한민희	한성우	한숙희	한승연
이향숙	이현국	이현순	이현심	이현아	이형숙	이혜경	한승연	한승희	한예성	한용순	한윤경	한이수	한인선
이혜영	이혜원	이혜정	이혜주	이혜진	이화정	이희남	한재희	한정	한정신	한정우	한정원	한정화	한지현
이희전	인치남	임경희	임광택	임동숙	임등자	임미령	한현식	한혜정	함봉진	항기나루	허경희	허선영	허영록
임미영	임병남	임병일	임성은	임성준	임성희	임양수	허영숙	허지웅	허철영	허혜정	현명금	현은순	홍경화
임완철	임재연	임재영	임정자	임정화	임정훈	임주경	홍선미	홍성희	홍수연	홍승연	홍시은	홍윤서	홍은미
임준호	임중현	임지은	임지현	임현주	임호환	임희진	홍정남	홍정혜	홍주실	홍지애	홍진기	홍학희	홍현표
장경미	장경세	장경화	장금환	장길례	장선희	장수용	홍호성	홍희정	황경희	황명숙	황미영	황보림	황보영
장순복	장순중	장승화	장영랑	장용익	장윤정	장주연	황선미	황선영	황어진	황양연	황용숙	황용하	황윤희
장철술	장한수	장현주	장혜미	장혜영	장훈	전덕기	황은경	황주혜					
전미덕	전민구	전상숙	전소영	전영삼	전유오	전윤숙	(주)시공디자인	(주)제이티	중앙이엔씨	양재2동어린이집			

후원 계좌

농협 317-2021-0710-9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문의 02-3705-6041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
입금계좌

농협은행

317-2021-0710-91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문의 02-3705-6034

캠페인 소개
영상 보기



내일빛 사람들

창립 100주년 기금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 바로 가기

** 후원 전체 명단 (2022년 10월 13일 기준)

개인				단체	위원회
강민아	고선혜	권도웅	김경화	(주)다인정공	국제협력위원회
김군태	김명희	김미현	김선덕	(주)아키엘로건축사사무소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위원회
김선자	김선희	김숙자	김숙희	(주)오토젠	누리봄위원회
김순임	김양선	김영심	김영자	강남청소년수련관 경제동아리 G·E·T	봉천종합사회복지관위원회
김우녕	김은희	김재신	김정순	꿈이있는교회	여성참여위원회
김현일	김 형	김혜옥	나미정	돌봄회원대표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위원회
민혜경	민홍숙	박두영	박미용	법무법인 정안	재정부위원회
박순예	박위자	박정희	박진선	엘지생활건강	청소년위원회
배은경	백향덕	송길례	신정자	이화여자대학교대학교회	회원활동위원회
신현미	양선희	오점희	우영숙	정동제일교회	
원영희	윤경임	윤상은	윤현숙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윤혜선	이강희	이경연	이명순	한국직업능력진흥원	
이명희	이복희	이숙현	이연배	Y커밍	
이옥희	이원희	이유림	이인순		
이종미	이주영	이필영	이해순		
이행자	이희전	장수자	전현숙		
정선덕	정수경	정영룡	제혜자		
조길수	조병성	조연신	조종남		
차귀숙	최 불	최수경	최신명		
최한나	최화순	한정석	한혜영		
홍근표	황성연	황성훈	황혜진		

후원자 예우

- 후원증서(기부금영수증) 발급
- 고액후원자 감사패 증정
- 100만원 이상 후원자
 - 홈페이지 내일빛 사람들 등재
 - 후원감사 선물 증정
- 기부금액 서울Y 도너월 합산 반영

** 9-10월 내일빛 사람들

<p>고선혜 서울YWCA 명예이사</p>  <p>서울Y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Y가 이 세상 속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p>	<p>김경화 서울YWCA 본부 부장</p>  <p>축복의 통로 서울YWCA!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 모든 분들을 축하합니다♡</p>	<p>김선희 서울YWCA 이사</p>  <p>서울YWCA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그 동안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p>
--	---	--

<p>신정자 서울YWCA 평생회원</p>  <p>지금까지 걸어온 서울YWCA의 100주년을 발판 삼아 앞으로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YWCA가 되기를 소망합니다</p>	<p>윤현숙 서울YWCA 명예위원</p>  <p>유일한 여성단체 서울Y와 100년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랑의 Y가족과 함께 축하합니다. 새로운 100년도 은혜와 감사로 축복합니다</p>	<p>이명희 서울YWCA 명예이사</p>  <p>서울YWCA 창립100주년! 축하합니다. 앞으로 1000년 대대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p>
<p>이복희 서울YWCA 이사</p>  <p>강한 태양과 비바람 속 백년을 견뎌온 서울YWCA가 풍성한 열매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끼치는 귀한 단체로 계속 자라기를 기도합니다.</p>	<p>이종미 강남청소년수련관 관장</p>  <p>우리 사회의 내일빛이 될 서울YWCA를 기대합니다</p>	<p>이희전 서울YWCA 이사</p>  <p>꿈을 꾸며 함께했던 지난 100년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마음모아 기도하며 서울YWCA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p>
<p>장수자 서울YWCA 명예위원</p>  <p>100년의 시간 동안 YWCA가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시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새 세상 만들어가게 하소서</p>	<p>정선덕 서울YWCA 이사</p>  <p>서울YWCA 창립 100주년을 축하하며 새로운 100년 내일을 비추는 한줄기 빛이 되길 축복합니다</p>	<p>최한나 서울YWCA 이사</p>  <p>더 낮은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기쁨으로 동행하는 새로운 100년이 되길 소망합니다</p>
<p>황혜진 서울YWCA 이사</p>  <p>서울Y 10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100년을 고민하며 발전하는 Y가 되길 기도합니다</p>	<p>국제협력팀위원회</p>  <p>세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서울YWCA 되게 하소서!</p>	<p>돌봄회원대표</p>  <p>돌봄회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서울YWCA!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는 Y가 되길 소망합니다</p>
<p>재정부위원회</p>  <p>서울YWCA 창립 100주년을 축하합니다</p>	<p>청소년위원회</p>  <p>이 땅의 청소년과 여성을 지켜온 서울Y가 다가올 100년에도 봉사과 헌신을 이어가길 소원합니다</p>	<p>Y커밍</p>  <p>Y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친교하며 헌신·봉사하게 하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p>

회원 소식

김수련 여성참여위원회 위원
8월 20일(토) 서예로 육조천자문을 쓴
「육조천자문」(주이화문화출판사 출간)

백미리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팀장
8월 25일(목) 모친상

오영선 강남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9월 14일(수) 모친상

윤해상 봉천종합사회복지관 대리
10월 9일(일) 낮 4시 50분
더컨벤션(영등포구청역)에서 결혼

정유진 봉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10월 22(토) 낮 2시
서립교회 수완예배당(전라 광주)에서 결혼

회원이 낸 책

축복 받은 사람들

이명희 명예이사 지음
계간문에 펴냄



“가족은, 부모는, 자식은, 그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 That’s family love!” (263쪽)
국제PEN문학상, 한국수필문학상, 한국문협 조연현문학상 수상 작가이며 시인이자 수필가인 이명희 명예이사가 장편소설을 선보였다. 유년기 친구였던 네 사람의 재회를 그린 작품으로, 우정과 사랑이 2세에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깔끔한 문체로 따뜻하고 유쾌하게 풀어냈다.
정종명 소설가는 “그의 간결하고 선명한 문체는 세르반테스를 떠올리게 한다. 윗트 있는 언어의 색채 또한 그렇다. 크리스천 스토이시즘이 질게 깔려 글로벌 시선을 압축시키는 보기 드문 휴머니즘 소설이다.”라고 평했다.

창립 100주년
서울YWCA 생명살림 바자회

후원 감사합니다

- | | |
|----------|-------------|
| 광동제약 | 엘레나에이치 |
| 농심 | 여의도떡집 |
| 다미의원 | 오뚜기 |
| 닥터봄 | 와이더블유커머스 |
| 더나은살 | 웰코스 |
| 동서식품 | 위니아 |
| 라엔리 | 유한킴벌리 |
| 로스팅데이 | 인투스타트업 |
| 로얄호텔 | 일양약품 |
| 롯데제과 | 제주마미 |
| 매일유업 | 주식회사 흥진경 |
| 밀알 | 커피앳웍스 |
| 빙그레 | 코웨이 |
| 빵명장 여주점 | 코코메디의원 |
| 쁘띠통 | 콤마, 와인 |
| 삼성전자 | 풀무원재단 |
| 서도비엔아이 | 프롬헤라스 |
| 서울우유협동조합 | 하늘에커피 |
| 서진TPS | 해태제과 |
| 솔티플래저 | CJ제일제당 |
| 스킨메드 | LG생활건강 |
| 아로마티카 | LG전자 |
| 아모레퍼시픽 | NH농협은행 명동지점 |
| 에치와이 | NS홈쇼핑 |
| 에프앤씨 | |

IOPE



바르는 입체각 리프팅
NEW PDRN X CAFFEINE SHOT

회원이 쓴 시

서울YWCA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맞춤 서비스

우리나라 최초의 간병사 교육·양성 기관인 서울YWCA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전문적인 요양보호사를 어르신 댁으로 파견하여 방문요양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 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어르신
내 용	신체활동·일상생활·가사 지원, 외출 동행, 말벗, 간병 서비스
근무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오후(3-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 9-18시 (8시간) 출·퇴근 서비스 • 월-토 (24시간) 입주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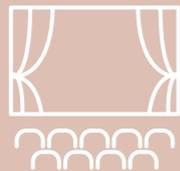
※ 요양보호사·간병사 수시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02-855-8826 / 010-2847-8826

‘극단 축’ 동아리원 모집

서울Y 회원동아리 ‘극단 축’에서 동아리원을 모집합니다
연극으로 나눔과 봉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서울Y 회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문의 02-3705-6034



새벽날개

한새벽

동트기 전
어둠의 장막 너머
영롱하게 빛나는 그대를
만나기 위해,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나간다

수평선 아래 눌러놓은
부질없는 꿈
슬프도록 아름다운 그리움이
불덩이로 솟아올라
눈물을 증발시키는데
감히 소리조차 낼 수 없어

서산에 걸린
저녁노을 스러질 때
갈 곳 몰라
서성이지 않기 위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대만을
바라보기 위해,
새벽마다 속으로 되뇌는
기도

한새빛 회원의 시로, 2022년 9월 출간된
한새빛 제6시집 <새벽날개>에 실린 전문이다

깊어지고 길어지는 주름 꼬리의 솔루션
안티에이징의 기초를 바로잡다

에이지 포커스 프라임 링클 포 올 세럼 & 아이 포 올 크림



ISAKNOX

창립 100년 비전선언문

1922년 서울YWCA 기독교여성들은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고 한국 여성들의 잠재력을 일깨우며 정의·평화·생명 세상을 건설하는 마중물이 되었다. 서울YWCA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를 돌보며 살리는 기독교여성시민운동의 역사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후 위기, 양극화, 사회갈등의 위기와 문명사적 전환기 앞에서도 서울YWCA는 시대의 위기를 돌파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본보기 삼아 도전적 의지와 책임감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할 것이다. 서울YWCA는 창립 100년을 맞아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을 선포하며 세상의 모든 여성과 함께 열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Y 여성의 무한한 가능성, 청년정신으로! 세상을 살리는 Y

W 기독교여성의 확장성, 사회적 영성으로! 세상을 살리는 Y

C 생태계의 회복, 더불어 살아감으로! 세상을 살리는 Y

A 정의·평화·생명 세상, 꿈꾸는 여성들과 연대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Y

서울YWCA의 새로운 비전은 사회적 책임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영성, 사회의 변화를 상상하고 만드는 운동성, 더 나은 세상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사회혁신과 변화를 위해 5대 목표를 수립한다.

하나, 기독교 정신을 사회적 언어로 소통하며 실천한다.

하나, 회원·시민과 함께 기독교여성주의, 기후 위기대응, 평화 운동을 전개하며 사회 변화를 이끈다.

하나, 서울YWCA 정체성 강화와 공유를 위해 중장기 고도화 사업에 주력한다.

하나, 다양한 사회문제와 이슈를 다룰 수 있는 포용적 조직문화를 확립한다.

하나, 세대, 성별, 지역 차이를 넘어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민사회운동 처음학교로 자리매김한다.

서울YWCA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여성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며, 정의와 평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2022. 1. 20.
사단법인 서울YWCA

2022년 서울YWCA 비전사업

서울YWCA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22

서울Y는 1만명의 여성활동가와 함께 100개의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 시작으로 2022년은 22개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평등을 넘어 평화로

- 성차별 미디어 아카이빙
- 청소년을 위한 성평등 미디어 리터러시 가이드 제작
- 여성청년 글로벌 평화리더십 프로그램
- 미안마 여성 역량강화 프로젝트
- 북한이탈청소년 영어교육 및 평화리더십 프로그램
- Y-틴 평화아카데미
- 청소년 평화 걷기
- 북한이탈청소년과 함께하는 평화 이야기마당
- 디아스포라 여성청년과 함께하는 평화의 밥상
- 시민건강교실 - 여성 생애주기별 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각자도생을 넘어 공동체적 삶으로



- 기후위기 대응 지구사랑 부부 챌린지
- 재소 청소년과 함께하는 '살고 살리는' 멘토링
- 서울YWCA 창립 100년 기금 모금 내일빛 캠페인
- NO 그린워싱! 기업 친환경성 평가 프로젝트
- 지구를 치유하는 가치 소비 확산 프로젝트
- 건강용품 소비자 안전 리포트
- Y-틴, 대학청년Y 회원 멘토링
- 돌봄과살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2022 서울YWCA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22

개인의 영성을 넘어 사회적 영성으로



- 목회자를 위한 성평등 교회 운영 매뉴얼 제작
- 교회 리더십을 위한 페미니즘 교육
- 기독교시민아카데미 개설
- 생애주기별 여성을 위한 예배



차사백

서울Y 2·4대 회장·교육자
(1897-1990)

1897년 4월 7일 해주에서 태어난 차사백 선생.
이화학당 예과를 거쳐 일본 오사카 램버스 여학원을 졸업한 그는
1923년 중앙보육학교(중앙대학 전신)을 설립, 교장으로 일했다.

1925년 본회 2대 회장, 다시 1934년에 4대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10년 이상 회장직을 맡아 서울Y 서대문시대를 이끌었다.

“여학교 교장은 여자로”라는 신념으로 여권신장운동에 앞장서며
1945년에는 무학공립여자중학교(현 무학여자고등학교)
초대 교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유치원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담당한 흔히 볼 수 없는
의욕적인 교육자로, 여성운동가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화여대 교수를 지내며 1950년에는 연합회 이사로도 활동했고
YWCA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연합회에서 공로표창을 받았다.

(사)서울YWCA www.seoulywca.or.kr 대표전화 3705-6000

지역번호 02

소비자정보센터 1372, 3705-6060
스포츠센터 수영·헬스·피트니스 3705-6030
돌봄과살림센터 가사돌봄미·산후조리사·아기돌봄미 3705-6013~4
간병사 3705-6071~2
재가장기요양기관 855-8826

봉천종합사회복지관 www.bongchunhy.or.kr 870-4400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www.ywcajob.or.kr 858-4514~5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www.job365.or.kr 951-0187~8
강남청소녀수련관 www.gangnamyc.or.kr 544-9725~6
누리봄 www.bongchunhy.or.kr 888-7983